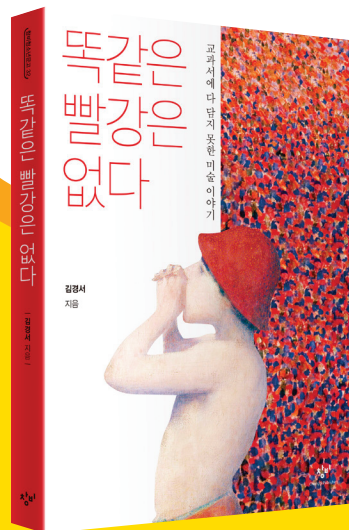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1

상산고등학교 강영준 선생님

미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자!

김경서 지음, 『똑같은 빨강은 없다』



책 소개

『똑같은 빨강은 없다』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친 저자가 미처 수업 시간에 못다 한 미술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 낸 청소년을 위한 교양서이다. 사람들은 흔히 미술 시간을 떠올리면 “난 그림을 잘 못 그려.” “미술은 어려워.”라는 말을 먼저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미술 시간에는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대적인 작품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미술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고, 꺼려지며, 어느 순간 낯설게 된다.

김경서 교사의 『똑같은 빨강은 없다』는 우리의 관심과 흥미에서 자취를 감춘 미술을 다시 불러내어 좀 더 친숙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돕는 책이다. 그러면서 미술이란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적인 감상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일깨운다. 잘 그려야 한다, 혹은 올바르게 감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이 책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술이란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수업의 초점

1. 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선입견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부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지닌 생각들을 나열하게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갖고, 추후 이런 선입견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도록 한다.

2. 미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쉽고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 이때에는 단순히 개념을 개조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를 직접 찾아보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1) 순수미술과 대중예술(상업예술)의 개념: 미술관에서 본 그림 한 편과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아이들이 말해 보는 활동을 유도한다.
- 2) 미와 숭고미의 차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경험, 거대한 것에 압도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감정을 통해 쾌와 불쾌, 미와 숭고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 3) 재현과 표현의 차이: 책 속에 등장하는 피카소의 「우는 여자」와 그림의 실제 모델 사진을 제시하여 그 차이를 말하게 한다.
- 4) 공공미술의 개념: 우리 주변에 설치된 미술을 직접 찾아보게 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

니는지, 또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다.

3. 미술 작품을 하나 골라서 이를 실제 평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궁극적으로 미술에 대한 감상을 안내하는 책이므로 책을 읽은 후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작품 하나를 골라서 이를 평가하게 한다. 주의할 점은 꼭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순수와 상업의 경계를 가르지 말고 활동을 시킬 것.)

☰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전 활동

1. 제목 『똑같은 빨강은 없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 제목을 『똑같은 빨강은 없다』로 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미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말들을 적어 봅시다.
- 미술 교과서를 배울 때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말들을 써 봅시다.

2. 차례 보며 내용 떠올려 보기

- 차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짐작해 봅시다.
- 차례를 보면서 이 책을 통해 어떤 의문점들을 해결할 것인지 정리해 봅시다.

3. 책에 있는 그림 감상하기

- 책을 읽기 전에 책에 실린 그림 중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골라 느낌을 말해 봅시다.

4. 미술에 관한 배경지식 파악하기



-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www.mmca.go.kr) 참고

●●● 읽기 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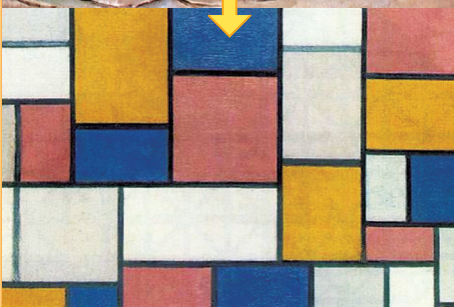
1. 궁금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며 읽는다.
2.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다.
3. 인상 깊은 구절들을 떠올려 보고 그 이유를 정리하며 읽는다.
4. 읽기 목적과 수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1장 아름다움을 경험하다

1. 다음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를 써 보자.(17~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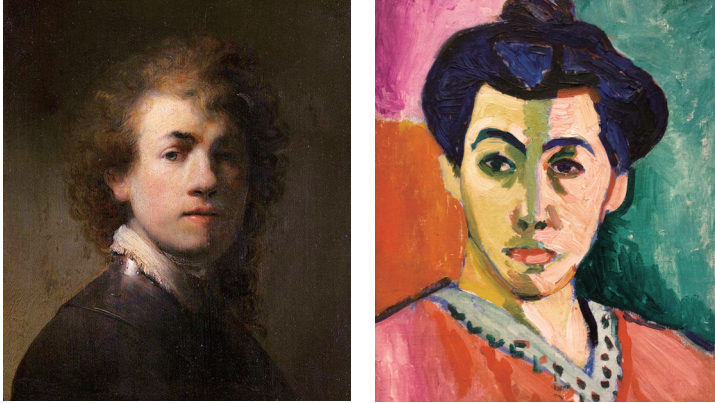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
	
	

2.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대상을 하나 골라 <보기>에 제시한 것과 같이 단순화를 시도해 보자.(45~49쪽)

<p><보기>몬드리안의 작업</p>	<p>자신의 작업</p>
	
	
	
	

2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다

1. 재현과 표현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 1) 두 그림에 사용된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말해 보자.
- 2) 어떤 그림이 더 실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 3) 어떤 그림이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더 적합한지 말해 보자.

2.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 1) 미술은 어떤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책에 제시된 미술의 재료를 말해 보고,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위에서 찾아보자.(93~109쪽)
- 2) ‘언제나 똑같은 빨강은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 보자.(110~128쪽)
- 3) 책 속에 소개된 공공미술 중에 인상 깊은 것을 하나 골라서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129~137쪽)

3장 아름다움을 생각하다

1. 미술은 창조적인 행위이다. 책 속에 등장한 미술 작품들이 어떤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지 말해 보자.
(208~222쪽)

미술 작품	창조성
마르셀 뒤샹, 「샘」 (본문 208쪽 참조)	
잔 클로드, 「포장된 독일 국회 의사당」 (본문 221쪽 참조)	

2. 미술은 현실의 문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래 그림은 어떤 현실 문제를 제기하는지 말해 보자. (231~259쪽)

미술 작품	창조성
게릴라 걸스의 그림 (본문 246쪽 참조)	

3.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미술 활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자.

●●● 읽기 후 활동

1.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찰해 보자.

- 책을 읽는 목적과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책을 읽었는가?
- 읽는 중에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며 읽었는가?
- 읽는 중에 시대적인 상황 등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하며 읽었는가?
- 읽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2. 모둠별로 나누어 독후 활동을 진행해 보자. 모둠별로 미술 작품을 골라서 이를 함께 비평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작품을 아래의 형식으로 분석해 보자.

(모둠에서 선택한 미술 작품)	
작품의 첫인상을 기록해 보자.	
어떤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가? 어떤 조형 요소가 사용되었는가?	
시대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은?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자.	

2) 1)을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만들어 발표해 보자.

3) 작품의 주제 의식을 더 발전시킬 미술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자.